

##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?

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

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

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,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,



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

이가 시린 것은,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.

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,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.



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, 멀리 있어도

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.

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,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



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릴 거래요.

좋은 기억,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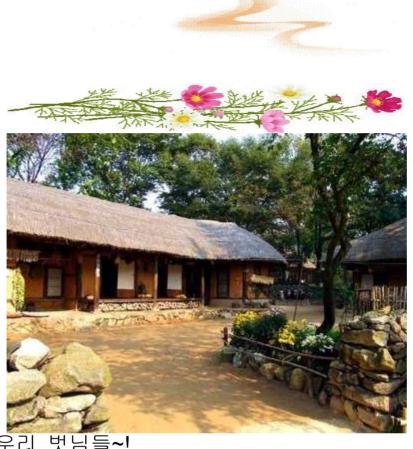
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.



가끔 힘들면 한숨 한 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.

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

= 출처:중년 내 사랑 카페 =



우리 벗님들~!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~^

